

漢代 이전의 醫籍을 통한 ‘炮制’의 연구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研究所
金聖喆·河洪起·金基郁*

A Study on processing of medicinal on medical books of before Han(漢)dynasty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Kim Sungcheol · Ha Hongki · Kim Kiwook.

We derived following result by organizing research about processing of medicinal of before Han(漢) dynasty. The human being intake of natural substance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was what happened later than the use of natural substance as food. According to the record of by the early years of Shang(商) dynasty, we can assume that we cooked food with water and fire. The reason why there is no appearance of common production that can be included under the name of ‘Tang Ye(湯液)’ in the medical record discovered from Ma Wang Du(馬王堆) is because ‘Tang Ye’ was yet developed. However, as the presentation of format of medicine process, there was gradual formation of medicinal fluid concept. There are quite of records on major details of cloth manufacture like washing and selection, grinding, processing of medicine from the recordings of 『Wu Shi Er Bing Fang(五十二病方)』, 『Yang Sheng Fang(養生方)』, 『Za Liao Fang(雜療方)』 discovered at Ma Wang Dui. It used words like ‘Ze(擇)’, ‘Qu(去)’ for the selection and ‘Jiu(酒)’, ‘Zhuo(濯)’ for the wash as a process method before cloth manufacture. When filter the processed medicine, it used words like ‘Zhuo(捉)’, ‘Suo(索)’, ‘Jun(浚)’ and used ‘Yin Gan(陰乾)’, ‘Bad(暴)’, ‘Yang(暘)’ for dry. The ‘cutting(切削)’ that crushes the medicine used different names based on the properties of medicines. The most frequent crush is ‘Ye(冶)’ and it means the powered medicine after dry. There was thermal process of mild fire(微火) and heating of ‘Wei(溫)’. There are many states of medicine seen from the medical record discovered at Ma Wang Dui so they can be said as original medicine. 藥末劑 is relatively commercialized type then. Here, it includes later 湯劑 but there was no name such as ‘decoction(湯)’ or ‘decoction of medical ingredients(湯液)’.

Also, ‘Fu Ju(呶咀)’ is the transformation of what was ‘Fu Qie(父且)’ at 『Ja Liao Fang』 of medical books of Ma Wang Dui with time flow. The original meaning of ‘Fu Qie(父且)’ is ‘Fu Zu(斧組)’ and it means the crushing medicine with axe. The most important thing among the medical books of Han dynasty is 『Shen Nong Ben Cao Jing(神農本草經)』 and 『Shang Han Za Bing Lun(傷寒雜病論)』 of Zhang Zhong Jing(張仲景). 『Shen Nong Ben Cao Jing』 mentioned the dry method of medicine, collection and process production time, cooked and uncooked use of medicine and there are several types of medicine. Other than those, it mentioned ‘Seven methods of combining herbs(七情合和)’ to address cautions for combining medicines. Therefore, the ‘processing of medicinal’ in east Han dynasty period entered the theoretical step. However, there is only little recording on cloth manufacture of detailed medicine. From the 『Shang Han Za Bing Lun』 of Zhang Zhong Jing, the development in the way of ‘processing of medicinal’ revealed the cloth manufacture for each medicine. This tradition is continued until today and so it presents the development of purpose of ‘processing of medicinal’ is to greatly present the effect of medicine and to reduce the side-effect.

Key Words : processing of medicinal, Han dynasty, Ma Wang Du(馬王堆), 『Shen Nong Ben Cao Jing(神農本草經)』, 『Shang Han Za Bing Lun(傷寒雜病論)』

* 교신저자 : 김기욱,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kkw@dongguk.ac.kr. Tel : 054-770-2664

접수일(2011년 7월 4일), 수정일(2011년 7월 4일),
게재확정일(2011년 7월19일)

I. 서론

포제는 역대로 ‘炮炙’, ‘治劑’, ‘修治’, ‘修事’, ‘修合’, ‘合和’, ‘修制’등이라 명명하였다. 약물을 포제하는 방법에 대해 清代 徐大椿은 약물의 외형을 가공 포제하는 것을 ‘制其形’이라 하였고, 寒熱溫涼, 有毒無毒한 약성을 억제하거나, 증가시키거나, 독성을 줄이거나,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을 ‘制其性’이라 하였고, 약물의 氣味를 변화시키는 것을 ‘制其味’라 하였고, 虛實輕重, 濕潤枯燥한 약물의 성질을 조절하는 것을 ‘制其質’이라 하여 4가지 방법으로 포제의 주요한 측면을 제시하였다¹⁾. 약물은 종류가 많고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炮制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그 내용이 풍부하다. 그러나 본초학의 기타 내용과 마찬가지로 炮制도 오랜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이 있었다.

포제에 관한 고대 자료로는 마왕퇴에서 출토된 『五十二病方』에서 초기 炮制가 운용된 상황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약물의 淨選, 粉碎, 炮炙 등에 관하여 많이 기재되어 있다. 세척, 청결 혹은 非藥用 부위의 제거(擇, 去, 破), 여과(捉), 절단(斬), 찢음(段), 연마(治), 분쇄(咀, 父且), 불을 이용하여 가공하는 것(溫, 燻, 燒, 炙, 熬, 煨), 물로 가공하는 것(煮, 煎, 蒸, 淬, 爨, 沸) 그리고 여러 액체의 輔料를 가하는 것이 나타난다. 그리고 성립연대에 대해 논쟁이 있지만 현존하는 『神農本草經』과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에 나타나는 포제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고대 포제법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炮制’와 ‘烹調’

藥食同源은 약물의 발견뿐만 아니라 炮制術의 기원에서도 체현되었다. 神農이百草를 맛보아 “一日而遇七十毒”²⁾한 것은 선인이 음식물과 약물을 찾는

가운데 나타난 대가이다. 의학 발전의 초기에는 毒이 있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았다. 독물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만 치병하기도 하여 『周禮·天官』에 “聚毒藥以供醫事”³⁾라는 말이 있게 되었다. 초기 약물 가운데 최초로 독성이 인식되고 이를 이용하여 치병한 것은 烏頭이다. 『淮南子』에서 “天下之物, 莫凶於雞毒(雞毒는 烏頭임), 然而良醫囊而藏之, 有所用也”⁴⁾라 하였다. 烏頭에 독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고 또한 이를 수장한 것은 烏頭에 치료 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약물의 독성을 억제하였을까? 인류가 발전한 초기에 가장 위대한 발명은 인공으로 불을 얻는 것이었다. “燧人氏始鑽木取火, 炮生爲熟, 令人無腹疾”⁵⁾이라 하여 火로써 인류의 식성과 생활을 개변시켰고 이후 약물 ‘炮制’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농업사회에서 식물류의 음식물이 점차 증가하였다. 도기가 발명됨에 따라 음식물을 익히는데 불과 물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古史考』에서 “黃帝使造釜”하여 이로써 “蒸穀爲飯, 烹穀爲粥”⁶⁾하였다. 이 때문에 최초의 약물 제형인 ‘湯液’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후세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다. 商初의 大臣인 伊尹이 烹調에 능했기 때문에 그를 湯液을 만든 사람으로 받들어 晉·皇甫謐은 “伊尹以亞聖之才, 撰用神農本草, 以爲湯液”⁷⁾이라 하였다.

그러나 伊尹이 살았던 商代는 『神農本草』와 같은 책이 물론 나올 수 없었다. 皇甫謐이 말한 것은 단지 전해진 당시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000여 년 전 商代에 이미 물과 불로 음식을 조리하였다는 것이다.

馬王堆 漢墓에서 출토된 『五十二病方』에서 300례에 가까운 치료법 중에서는 湯이라는 말이 9例가 나타나는데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는 단지

- 1) 朱橚. 普濟方《中國醫學大系》23卷. 서울. 麗江出版社. 1978. p.755*301.
- 2) 漢·鄭康成注. 周禮注疏·天官家宰下《十三經注疏》卷2. 北京. 中華書局. 1980. p.21.
- 3) 漢·劉安. 淮南子·主術訓 卷9. 發行年未詳. p.139.
- 4) 宋·李昉. 禮含文嘉《太平御覽》卷869. 發行年未詳. p.3854.
- 5) 蜀·樵周. 古史考. 北京. 中華書局. 1991. p.9.
- 6) 晉·皇甫謐. 甲乙經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2.

1) 明·熊宗立. 醫學源流 卷上《名方類證醫書大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p.39.

물을 끓이는 탕이고, 둘째는 세척용의 탕이고, 세 번째는 무엇을 찼 때 떨어지는汁을 말한다. 湯의 이 세 가지 의미는 제형으로서의 湯液의 개념은 아직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湯液의 명칭으로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공통의 調劑法에 의해 만들어진 藥劑는 아직 定形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제의 萌芽로 보이는 것이 몇몇 나타나고 있다. 첫째, 약물을 水煮하는 처방(16 또는 18개)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尿路疾患이라는 특정한 병증에만 적용되는 처방이다. 둘째, 酒煮하여 발한 시켰는데 이는 水煮의 적응증을 확대시켰다. 셋째 곡물의 죽 내지는 米汁으로 그 적응증이 水煮나 酒醎煮와도 다르다. 이는 일반적인 제형으로서의 탕액 개념의 성립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⁸⁾.

그리고 『武威漢代醫簡』, 『史記扁鵲倉公列傳』, 『黃帝內經』을 통하여 湯液의 製法과 종류가 前漢末까지 급격하고 풍부히 증가하였음이 알 수 있는데 『湯液經法』의 출현이 그것을 입증한다.

아울러 약물로 구성된 탕액을 복용하기 위해 반드시 약제를 분쇄하여 가공하고 또한 조리와 마찬가지로 調味와 냄새를 없애서 약물이 쉽게 목으로 잘 넘어가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마찬가지로 약물과 음식물 ‘炮制’에서도 때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조리에 사용하는 수많은 조미료(薑, 桂, 醋, 鹽, 梅)와 일상음료(酒, 醋)가 약물을 ‘炮制’하는데 사용되었다. “酒爲百藥之長”⁹⁾이라 하여 이는 가장 오래된 약물이면서 약물을 포제하는 가운데 가장 널리 운용된 輔料의 하나이다. 烹調術이 발전함에 따라 炮制術을 낳기도 하였다. ‘炮制’가 탄생한 과정이 매우 오래되어 先秦시기에 이르기까지 선인들은 경험을 누적시켰다. 그러나 先秦 전적에는 ‘炮制’의 지식이 매우 드물다. 漢代 醫籍이 출토됨에 따라 초기 ‘炮制’ 상황을 이해하는 조건을 보다 많이 가지게 되었다.

2. 馬王堆 출토의서의 ‘炮制’와 ‘咬咀’

1) 약물의 포제

馬王堆 漢墓에서 출토된 『五十二病方』 등에 약물의 淨選, 粉碎, 炮炙 등에 관하여 상당히 많이 기재되어 있는데, 세척(汙+幹), 청결 혹은 非藥用 부위를 제거(擇, 去, 破), 여과(捉), 절단(斬), 찢음(段), 연마(治), 분쇄(咀, 父且), 불로 가공(溫, 燔, 燒, 炙, 熬, 熅), 물로 가공(煮, 煎, 蒸, 淬, 爨, 沸) 및 여러 가지 액체의 輔料를 가하여 약액을 담근다¹⁰⁾. 『養生方』에는 6개의 藥酒方이 나타나고 『雜療方』에도 藥酒方 하나가 있다. 酒醎·동물의 油脂 등을 가한 약방은 흔히 나타난다. 총체적으로 보면 馬王堆 漢墓에서 출토된 의서에서 나타난 가공 포제의 방법은 간단하지만 포제의 주요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포제하기 이전의 처리방법

세척한다는 뜻으로, 마왕퇴 출토의서에서는 ‘汙幹’ (『胎產書』에서 “以清汙幹 胞”¹¹⁾)라 하여 찌꺼기를 걸러낸 ‘清’한 주류로 태반을 세척하는 것, ‘酒’ (“以酒疽癰”¹²⁾), ‘濯’ (“濯其胞”¹³⁾)이라 하였다.

선별한다는 뜻으로, ‘擇’ (“久溺中泥”에 대한 처리에 “善擇, 去其沙礫石”¹⁴⁾), ‘去’ (‘螻蛄’에 대한 처리는 “去其甲足”¹⁵⁾), 白朮에 대해서는 “朮根去皮”¹⁶⁾), ‘破’ (‘大牡蠣’에 대한 처리에 “皮去腸”¹⁷⁾) 등이라 하였다. 동물성 油脂에 대한 처리는 ‘漚’ (“漚者 [疑] 膏”¹⁸⁾)라 하여

- 10)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p.121-146.
- 11)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803.
- 12)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35.
- 13)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813.
- 14)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65.
- 1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79.
- 16)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51.
- 17)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713.

8) 山田慶兒. 湯液の起源科學史資料の研究.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85. p.84.

9) 漢·班固. 漢書·食貨志 卷24. 發行年未詳. p.1183.

돼지기름을 깨끗하게 씻음)이라 하였다. 이 밖에 『養生方』에서는 禽類의 털을 뽑는데 대한 방법으로 ‘搷’(“以雄鷄一, 產搷”¹⁹)이라 하여 수탉을 산채로 털을 뽑는 것. 『說文解字』에서 “搷”字는 “搗也”²⁰라 하여 찧는다는 뜻이 있다)이라 하였다.

가공한 약물의 용액은 때로는 여과를 요한다. 여과시킨 뒤의 약 찌끼는 버리거나 혹은 약액과 함께 복용한다. 출토의서에서는 ‘捉’(“以布捉取, 出其汁”²¹)이라 하여 약물을 담아 압력을 가하여 약액을 여과시킨다), ‘索’(“索汁而成”²²), “汁滓皆索食之”²³라 하여 ‘索’자의 뜻은 盡이고 壓搾으로 인신된다), ‘浚’(“浚取其汁”²⁴), “孰浚”²⁵), “浚去其滓”²⁶), ‘泚’(“泚取汁”²⁷), ‘閭’(즉 濾로 “閭棄其滓”²⁸), ‘潛’(“潛去其滓”²⁹)라 하여 ‘潛’자의 원래 뜻은 抑이고 壓搾으로 인신된다), ‘蚩’(“蚩其汁”³⁰)이라 하여 濾淨의 뜻이 있다)라 하였다. 이 밖에 버린 약 찌끼도 ‘涿’(“去其涿者”³¹)라 하였다. 外治法 方面에 약 찌끼를 붙이는 것도 있다(“飲其汁, 以滓封其瘡”³²).

또한 건조는 약물의 수분을 감소시켜 보존에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다. 또한 陰乾과 曬乾을 구별하였다. 출토의서에서는 ‘陰乾’, ‘暴’(曝), ‘暘’ 등이라 하였다. 汾菌을 사용할 때에는 “勿令見日, 陰乾之”³³라 하였고, 白朮은 “曝若有所燥”³⁴라 하여 햇볕에 말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건조시키고, 苦藟은 “不曝”³⁵)이라 하여 햇볕에 쬐어 말리지 말고, 葯巾을 만들 때에는 “暘之”하고³⁶) 鼯鼠는 건조한 후에 研末하는 “乾而治”³⁷라 하였다.

② 약물의 분쇄

약물을 분쇄하는 것은 약물의 체적을 바꾸어 劑劑와 복용에 편리하게 한다. 출토의서에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다.

‘切削’은 약재 성질의 특징에 근거하여 명칭이 다르다. “削予木去其上[竹+ 否]亞者, 而卒斬之”³⁸)라 하여 樹皮와 가지를 자르는 “白付小削”³⁹), “削顛棘”⁴⁰)이라 하여 작은 덩어리로 자르는 ‘削’(‘削’은 ‘削’ 혹은 ‘尊+ 刀’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取牛肉薄剝之”⁴¹)라 하여 소고기의 육편을 얇게 자르는 ‘剝’, “削予木”⁴²), “削春木”⁴³)하는 ‘削’, “屑芍藥”⁴⁴),

18)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41.
1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67.
20) 許信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 上海. 上海古籍出版社出版, 1984. p.599.
21)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41.
22)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734.
23)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28.
24)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59.
2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776.
26)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734.
27)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92.
28)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78.
2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89.
30)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15.
31)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82.

32)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04.
33)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92.
34)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51.
3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51.
36)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95.
37)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49.
38)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82.
3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19.
40)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55.
41)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707.
42)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82.
43)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94.

“取棗種粗屑”⁴⁵⁾이라 하여 분쇄하여 가루로 내는 ‘屑’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剡獮膏”⁴⁶⁾하는 ‘剡’, ‘細析’, ‘孰析’이라 하여 분쇄, 잘게 부수는 뜻인 ‘析’ 등이 있는데, 모두 切削하는 뜻이다.

출토의서에서는 ‘搗打’하는 것에 대해, “段烏喙一升”⁴⁷⁾, “取空壘二門吹咀段之”⁴⁸⁾, “[馬肉脯]即以椎薄段之”⁴⁹⁾라 하여 몽치로 치거나 방망이로 두드리는 뜻인 ‘段’이라 하였다. “……並搗”⁵⁰⁾, “搗而煮之”⁵¹⁾, “搗之以春”⁵²⁾, “春之”⁵³⁾라 하여 약물을 특별히 만든 절구에 넣고 찡는 것을 ‘搗’라 하였다. “烏卵勿毀”⁵⁴⁾, “取邑鳥卵, 潰”⁵⁵⁾라 하여 조류의 알을 깨 때에는 ‘毀’, ‘潰’라 하였다.

출토의서에서 절대 다수 약물의 분쇄방법은 건조시켜 갈아서 분말로 만든 것으로 이를 ‘治’라 하였다. 갈아서 細末로 만드는 것을 “治精”⁵⁶⁾이라 하였다. ‘治’는 漢代 『治百病方』에서도 사용하였지만 東漢 張仲景에 이르러 『金匱要略』의 大黃蠶蟲丸方에서 “右十二味, 末之, 煉蜜和丸”⁵⁷⁾이라 하였고, 皂莢丸

方에서 “右一味, 末之, 蜜丸”⁵⁸⁾이라 한 바와 같이 ‘末’로 고쳤다. “取茹盧本蠶之”⁵⁹⁾, “壘杏核中仁”⁶⁰⁾, “壘[虫+危]”⁶¹⁾(즉 ‘방게’)라 하여 즙액이 비교적 많은 동물약이나 신선한 식물의 연말과 분쇄를 ‘壘’ 혹은 ‘壘’라 하였다. “靡水銀”⁶²⁾, “靡取蠶種”⁶³⁾이라 하여 광물성 혹은 과립상약물의 研末을 ‘靡’(즉 磨)라 하였는데, 약물을 돌로 갈아서 분말을 만들어 곁에 붙이는 약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물을 부어 돌에 갈아 얻은 현탁액은 후대의 水飛法과 유사하다.

③ 액체 輔料의 처리

액체보료는 주로 약물을 浸泡하는 용매를 말한다. 그 중에 물 이외에 상용된 것은 각종 주류(醇, 醴, 淸, 醇酒 등이 포함됨), 醋(醢), 油脂(脂膏, 餒膏) 및 膽汁, 醬汁 등이다. 액체보료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출토의서에서는 “以酒掣封之”⁶⁴⁾라 하여 약물을 적신 후에 환부에 붙이는 것을 ‘掣’(濕을 뜻함)라 하였고, 약액을 뿌리는 것을 ‘灑’이라 하였다. 또 약물을 용매에 浸泡하는 것을 “取商牢潰醢中”⁶⁵⁾, “以小童溺潰陵叔”⁶⁶⁾, “淳酒漬而餅之”⁶⁷⁾라 하여 ‘潰’라 하였고, “即以犬矢濕之”⁶⁸⁾라 하여 ‘濕’이라 하였다. 액체를 약물에 뿌리는 것을 출토의서에서는 ‘沃’

44)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93.
 4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58.
 46)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85.
 47)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722.
 48)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751.
 4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715.
 50)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92.
 51)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89.
 52)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16.
 53)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19.
 54)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29.
 5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700.
 56)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31.
 57) 張仲景. 金匱要略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21.

58) 張仲景. 金匱要略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23.
 5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17.
 60)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45.
 61)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51.
 62)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13.
 63)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87.
 64)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56.
 6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35.
 66)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82.
 67)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722.
 68)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26.

(“以酒沃”⁶⁹)이라 하였고, ‘洎’(‘洎’자의 본래 뜻은 肉汁이고 인신하여 물을 뿌리는 뜻이 있다. “洎水三斗”⁷⁰)이라 하였다. 달인 후 약액을 걸러내는 것은 ‘杼’(“煮李實, 疾沸, 而杼”⁷¹)라 하였다.

④ 가운 처리

일부 약물은 불로 가운한 후에 응용한다. 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微火로 가운하는 것 ‘溫’(“溫之勿熱”⁷²)이라 하였다. 약물을 烤炙하는 것은 “犬骨燔”⁷³, “燔蜋”⁷⁴, “取屍魚燔而治”⁷⁵, “取陳葵莖燔治之”⁷⁶, “燔狸皮治灰”⁷⁷, “燔羊矢”⁷⁸라 하여 ‘燔’ 혹은 ‘類’(燔과 같다)이라 하였다. “燒陳蒿其中令其灰”⁷⁹와 같은 ‘燒’(熬와 같다)가 있다. “炙梓葉”⁸⁰과 같은 ‘炙’가 있고, “取薺乾實熬令焦黑”⁸¹, “熬鹽以熨”⁸², “熬陵枝一蓼, 令黃”⁸³이라 하여 용기에 물을 가지지 않고 불로 乾炒하는 ‘熬’가 있고, “燻桑炭”⁸⁴

하는 ‘燻’이 있다. “以雄雞一, 產搗”⁸⁵이라 하여 수탉을 산체로 燒死시키는 ‘熨’이 있다. 또 油脂類로 가열하여 溶化시키는 것을 “銷松脂”⁸⁶라 하여 ‘銷’라 하였다. 약물을 용기에 넣고 물을 가하여 달이는 것을 ‘饜’(“以藿堅稠節者饜, 令大沸”⁸⁷), ‘煮’(“煮鐵”⁸⁸), ‘煎’(“煎白頸蚯蚓”⁸⁹)이라 하였다. 불에 달군 약물이 식기 전에 신속하게 물(혹은 술)에 적시는 것 ‘淬’(“熬鹽令黃, 取一斗, 裹以布, 淬醇酒中”⁹⁰, “淬鐵”⁹¹)라 한다.

⑤ 혼합과攪拌

출토의서에서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혼합하는 것을 대체로 ‘置’(“置一杯醴中”⁹², “置溫湯中”⁹³), ‘入’(“入八菽醬中”⁹⁴), ‘投’(“投藥糗中”⁹⁵)라 하였다.

두 가지 이상의 약물(분말, 과립 혹은 液, 脂를 포함)을 잘 攪拌하는 것에는 ‘撓’(“撓飲”⁹⁶, “合撓”⁹⁷, “撓以浴之”⁹⁸), ‘穀’(‘穀’는 건조한 약물의 교반에 많이 사용한다. “以牛若鹿血穀”⁹⁹)라 하였다), ‘弁’(‘弁’자는

6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42.
70)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11.
71)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59.
72)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766.
73)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760.
74)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731.
7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49.
76)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85.
77)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16.
78)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35.
7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60.
80)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47.
81)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51.
82)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55.
83)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15.
84)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96.

8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67.
86)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723.
87)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89.
88)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96.
8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87.
90)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55.
91)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87.
92)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68.
93)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48.
94)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73.
9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73.
96)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51.
97)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00.
98)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71.
9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82.

유지 혹은 점액성을 띤 약물의 교반에 많이 사용한다. “以雜棗之脂弁之”¹⁰⁰⁾, “以雞卵弁兔毛傅之”¹⁰¹⁾, “以春脂弁之”¹⁰²⁾, ‘畚’(“以牡鳥卵畚丸, 如鼠矢”¹⁰³⁾), “掣和”¹⁰⁴⁾ (‘掣’자는 여기에서는 ‘拏’와 같고 뜻은 煩亂으로 서로 섞는 것으로 인신된다. “冶柳付與脂膏相掣”¹⁰⁵⁾), ‘饡’(饡자의 원래 뜻은 ‘具食’이다.) 등이 있다.

⑥ 약물의 보관

馬王堆 출토의서에서는 각 약물의 收藏방법도 기재하였다. 약물을 收藏할 때는 주로 ‘韋’(즉 皮革), ‘緇’(즉 명주), ‘布’로 싸서 보관하였다(“善裹以韋”¹⁰⁶⁾, “裹以韋藏”¹⁰⁷⁾, “裹以緇藏”¹⁰⁸⁾). 혹은 상술한 것으로 만든 포대(즉 “囊”과 “橐”. “以韋橐裹”¹⁰⁹⁾, “囊盛之”¹¹⁰⁾, “裹以緇藏”¹¹¹⁾, “以囊盛”¹¹²⁾)이다. 이 밖에 방향성 약품을 竹筒에 넣어 밀폐하여 보존하였다(『雜療方』에서 “藏筒中, 勿令歇”¹¹³⁾)이라 하여 氣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였다).

어떤 질병에 사용하는 약물에 대해 다년간 저장할 것을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여자 癰病을 치료할 때에는 3년이 지난 陳藿을 사용하였고¹¹⁴⁾, 외과의 外科‘痂’병을 치료할 때에는 3년이 지난 豬油를 붙인다¹¹⁵⁾. 또한 ‘白處’ 병 치료에 있어서 제조하는 成藥 약방 가운데 10여 년에서 ××년 이상 보관한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¹¹⁶⁾고 하였다.

2) 약물의 제형

馬王堆 의서에 나타난 약물의 제형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이는 『五十二病方』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여기에 있는 300여 개의 의방에서 祝由方과 훼손되어 판별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판별할 수 있는 170여 개의 온전한 의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총괄할 수 있다.

① 천연약물 제제

자연계에 흔한 어떤 물질을 炮炙나 가공하지 않고 직접 약에 넣는 것으로 『五十二病方』에 25방이 있다. 그 가운데 嬰兒의 오줌을 내복하는 약방을 제외하면 모두 外用방이다. 이러한 약방의 구성과 용법은 어떤 것은 羊矢¹¹⁷⁾, 食鹽¹¹⁸⁾, 芥子¹¹⁹⁾, 井中泥¹²⁰⁾, 活魚¹²¹⁾, 人泥(사람의 汗垢)¹²²⁾, 赤蜩(도마뱀과 같은 동물)¹²³⁾, 桑樹液汁¹²⁴⁾ 등을 직접 이용하여 환부에

100)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93.
 101)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52.
 102)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16.
 103)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72.
 104)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88.
 10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88.
 106)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62.
 107)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51.
 108)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51.
 10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722.
 110)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80.
 111)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51.
 112)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735.
 113)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755.

114)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67. “女子癰, 取三歲陳藿, 蒸而取其汁, 口而飲之.”
 11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87. “取三歲織, 豬膏, 傅之.”
 116)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29. “此藥已成, 居雖十餘歲到口歲, 俞(諭)良.”
 117)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35.
 118)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98.
 11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05.
 120)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16.
 121)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37.
 122)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47.
 123)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74.

붙인다. 어떤 것은 찢거나 씹어 붙이는 것으로 蒺藜¹²⁵⁾, 白蒿¹²⁶⁾, 生兔腦¹²⁷⁾ 등이다. 어떤 것은 桑樹液汁 등 自然汁을 붙이고 고대 조미료인 ‘生豚藪’(먹는 山茱萸의 종자로 만든 것)¹²⁸⁾를 상처에 문지르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천연 약물의 방이 1/10을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원시적인 약물제제라 말할 수 있다.

② 食療劑

食療劑는 약물을 식품에 넣어 내복하는 방식이다. 그 가운데 기타 제형을 응용한 것을 제외하고 단순한 食療方은 『五十二病方』에서 8방이고 『養生方』과 『雜療方』에 10방이 있다. 방제의 조성은 약물로 고기를 삶은 후 고기와 국물을 먹는 것(예를 들어 닭고기를 찢거나 야생돼지고기를 삶아 복용하여 蜥蜴이나 뱀에 물린 것을 치료하고¹²⁹⁾, 장을 부어 구운 닭고기로 치질을 치료¹³⁰⁾)이 있고, 먼저 약물 즙을 내어 고기를 삶아 내복하는 것(약물 즙으로 닭고기 포나 말고기 포에 섞거나 약물 즙으로 소고기를 삶아 강장제를 만든다 -『養生方』¹³¹⁾)이 있고, 동물의 피나 알을 먹는 것(예를 들어 蠶蟲, 蛇, 蜂에 물린 데 치료는 鱉肉이나 鱉血을 복용한다. 癩癩 치료에 달걀을 초에 담가 내복한다)¹³²⁾이 있고, 약주로

밥을 짓는 것(『養生方·走』¹³³⁾)이 있고, 죽이나 약 죽을 만들어 복용하는 것(靑梁米의 죽으로 蛇咬傷을 치료하고¹³⁴⁾, 돌을 달구어 삶은 米汁으로 肛門의 통증을 치료¹³⁵⁾하는 등) 등이 있다.

③ 藥末劑

藥末劑(馬王堆 의서에는 ‘散’이라는 말이 없어 藥末이 칭한다). 『五十二病方』에는 31방이 있어 이는 당시 비교적 상용된 제형이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즉 일반 藥末劑과 炭末劑이다. 일반 藥末劑는 주로 약물을 건조시킨 후에 갈아서 만든 것이다. 같은 약방에서 2가지 이상의 약물을 분말할 때 또한 각기 분말을 만들어 함께 섞는 것(『養生方』에서 “門冬, 朮, 防風各治之”¹³⁶⁾라 하였다)이 있고, 함께 갈아서 약에 넣는 것(『五十二病方』에서 “白藪三, 百合 [罷合] 一, 並治”¹³⁷⁾라 하였다)이 다르다.

④ 炭末劑

炭末劑는 마왕퇴 의서에서 ‘灰’(예를 들어 “燔魚衣, 以其灰傅之”¹³⁸⁾) 혹은 ‘炭’(예를 들어 “燔瓦鬲炭”¹³⁹⁾) 도기로 만든 술에 구워 炭으로 만든)이라 하였다.

藥炭을 만드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직접 약물을 볶아 태운 후에 갈아서 분말로 만든다(예를 들어 건조시킨 薺實을 “熬令焦黑”¹⁴⁰⁾한다). 둘째

124)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91.
12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99.
126)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99.
127)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29.
128)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06.
12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11. “烹三宿雄鷄二, 泊水三斗, 熟而出, 及汁更泊, 以金口逆飮下. 炊五穀, 免頭肉它甌中, 稍沃以汁, 令下孟中, 熟飲汁.”
130)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20. “痔者, 以醬灌黃雌鷄, 令自死, 以菅裹, 塗土, 炮之. 塗幹, 食鷄, 以羽熏竅.”
131)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67, p.707, p.722.
132)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p.775-777. “即不幸爲蠶蟲蛇蜂射者, …… 一曰: 刑鱉, 飲其血, 蒸其肉而食之.”

133)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p.733-734. “一曰: 烏喙五, 龍葵三, 石韋, 防風, 伏菟各□, 陰幹, □□□□□□□去其□□□治五物, 入酒中一日一夜, 浚去其滓, 以汁漬滷飯, 如食頃, □□幹, 幹又複□□幹, 索汁而成.”
134)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p.404-410. “蜃: 齋蘭, ……以靑梁米爲粥, 水十五而米一, 成粥五鬥, 出, 揚去氣.”
13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08. “牡痔之居竅廉, 大如棗核, 時癢時痛者方: 先割之; 弗能割, □龜腦與地膽蟲相半, 和, 以傅之. 燔小橢石, 淬醢中, 以熨. 不已, 又複之, 如此數. 令.”
136)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709.
137)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38.
138)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53.
13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31.
140)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51.

약물을 먼저 갈아 분말을 내어 淳酒로 藥餅을 만든 다음 다시 기와에 올려 불로 태워 炭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다시 갈아서 분말을 만들어 약에 넣는다(예를 들어 『五十二病方』諸傷을 치료하는 세 번째 방에 사용한 약물이 ‘齊實’이다.¹⁴¹⁾). 셋째 약물을 질그릇에 담아 밀봉하고 불로 태워 炭이 되면 叩집어 내어 갈아서 약에 넣는다(예를 들어 『五十二病方』蠱病을 치료하는 네 번째 방에서 사용한 약물이 雄雞와 蛇이다.¹⁴²⁾).

⑤ 丸劑

마왕퇴 의서에서 丸藥方은 많지 않지만 ‘丸’과 ‘稍丸’(즉 거칠게 만든 환)의 명칭은 있다. 그 가운데 저작 연대가 비교적 빠른 『五十二病方』에는 모두 4개의 丸藥方이 있고 만드는 법은 후대와 다르며, 賦形劑는 술(“以溫酒一杯和”¹⁴³⁾)하여 치질을 치료하고, “漬以淳酒而丸之”¹⁴⁴⁾하여 牝痔를 치료한다, 醋(예를 들어 “以美醯……稍丸”¹⁴⁵⁾한다.), 油脂(예를 들어 “以茯苓……搗之以春, 脂弁 [拌和] 之”¹⁴⁶⁾라 하였다.) 등이다. 여기에는 水丸은 없고 蜜丸도 없는데 이러한 환약 제형이 나타난 것은 비교적 늦었다. 여기에는 또한 꿀을 달인 약에 넣는 약방이 있는데, 즉 配方한 약물을 달인 후에 다시 “以蜜和, 令才甘(즉 약간 달게 함). 寒溫適, 飲之”¹⁴⁷⁾라 하여 蜜丸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五十二病方』보다 약간 늦은 『養生方』과 『雜療方』에는 丸藥方의 숫자가 보다 많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환약을 제조하는 賦形劑도 보다 많은 형식이 나타난다. 특히 蜜 혹은 棗膏(棗脂라 하기도 함)로 制丸하는

약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密丸方은 『雜療方』과 『養生方』에 각기 1方(『雜療方』에 “以蜜若(或)棗膏和, 丸之.”¹⁴⁸⁾라 함)이 있다.

이 이후 西漢 醫簡인 『治百病方』과 東漢의 『傷寒雜病論』 등 漢代 의서에 이르러 환약제형이 점차 주요 형식이 되었다.

棗膏로 환을 만드는 것이 위의 두 책에 각기 1方이 있다. 이른바 棗膏는 삶아서 허물어진 대추를 찢어서 진흙같이 만든 것으로 『養生方』에서는 “棗脂”¹⁴⁹⁾라 하였는데 즉 『金匱要略』에서 ‘棗肉’(이 책의 ‘竹皮大丸方’에 ‘棗肉和丸’이라 하였다.¹⁵⁰⁾)이기도 하다.

⑥ 水劑

마왕퇴 의서에는 후대의 湯劑를 포함하고 있지만 ‘湯’ 혹은 ‘湯液’이라는 명칭은 없다. 『五十二病方』에서 水劑는 29方이다. 그 중에 일반 수용액은 4方이 있어 즉 약물을 직접 물에 넣고 저어서 섞은 후에 가라앉혀 취한다. 예를 들어 馬矢를 물에 넣어 가라앉힌 물은 陰囊腫大를 치료 한다¹⁵¹⁾. 월경대를 물에 담가 얻은 물은 ‘爛者’(潰瘍性 질환)를 치료 한다¹⁵²⁾. 瘡를 찢어 물에 담근 것은 疣를 치료하는 것¹⁵³⁾ 등이다.

溫水에 약을 담근 용액 1方이 있는데, 즉 硝石을 온수에 담가 癰을 치료 한다¹⁵⁴⁾.

물의 懸濁液이 1方 있는데, 즉 恒石 두 덩이에 물을 가하여 서로 마찰시켜 얻은 懸濁液은 미친개에 물린 것을 치료 한다¹⁵⁵⁾.

141)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31.
 142)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33.
 143)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00.
 144)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21.
 14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84.
 146)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16.
 147)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58.

148)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759.
 14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76.
 150) 張仲景, 金匱要略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71.
 151)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72. “腫囊者, 黑實囊, 不去, 治之, 取馬矢粗者三斗, 孰析, 沃以水, 水清, 止.”
 152)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p.547-555. “口爛者, ……漬女子布, 以汁傳之”
 153)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22.
 154)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48. “消石置溫湯中, 以酒癰.”
 15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80. “狂犬齧人: 取恒石兩, 以相磨也, 取其磨如糜者, 以傅犬所齧者, 已矣.”

물로 약물을 달인 것이 모두 20方이다. 예를 들어 蓬蘽를 달인 물로 癰疽를 씻고¹⁵⁶⁾, 荊을 달여 血癰을 치료하고¹⁵⁷⁾, 石韋를 달여 石癰을 치료¹⁵⁸⁾하는 등이다. 이렇게 달이는 것은 실제로 나중에 ‘湯方’(湯劑)의 효시가 되었지만 약물과 용법은 극히 단순하고 순박하다.

약물을 찌서 즙액을 취하는 것이 13方이다. 예를 들어 大豆의 梗를 찌서 얻은 액즙은 여자의 癰을 치료¹⁵⁹⁾하고 糞를 찌서 즙을 마셔서 癰을 치료¹⁶⁰⁾하는 등이다.

⑦ 酒劑

술을 만든 역사는 유구하여 周代 이전에 술의 종류가 매우 많았다. 周代 제도에 술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관직과 이른바 ‘五齊’, ‘三酒’, ‘四飲’ 등 여러 주류의 명칭이 있었다(『周禮·天官』¹⁶¹⁾). 그러나 상술한 주류 가운데 “醴”(일종의 甜酒)¹⁶²⁾, “醕”(이것도 일종의 甜酒이다)¹⁶³⁾, “淸”(찌꺼기를 걸은 醴酒)¹⁶⁴⁾, “漿”(약간 신맛이 나는 술)¹⁶⁵⁾, “醇酒”(농도가 짙은 술)¹⁶⁶⁾ 등은 마찬가지로 마왕퇴 의서에 나타나 이들의 시대가 가깝고 관계도 밀접함을 말해주고 있다.

156)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35. “三乃煮蓬蘽, 取汁四斗, 以酒疽癰.”
157)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64. “血癰, 煮荊, 三溫之而飲之.”
158)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65. “石癰, 三溫煮石韋, 若酒而飲之.”
15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67. “女子癰, 取三歲陳糞, 蒸而取其汁, 而飲之.”
160)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56. “烹糞而飲其汁; 冬□□本, 沃以□□.”
161) 鄭玄 撰. 周禮《四部叢刊正編》. 서울. 法仁文化社. 1988. pp.23-24.
162)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59.
163)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66.
164)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82.
16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10.
166)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40.

⑧ 醋劑

醋劑는 『五十二病方』에 모두 9方이 있다. 醋溶方(“取蜂卵一, 漬美醢一杯, 以飲之”¹⁶⁷⁾)과 醋煮方(“取蜚蠊……烏喙……罌……並以裁[汁]一斗煮之”¹⁶⁸⁾)의 두 가지 제조법이 있다.

이 밖에 醋劑에 약물가루를 배합하여 함께 사용한다. 예를 들어 癰病을 치료하는 방으로 먼저 黑豆를 초에 넣어 달여서 醋劑를 만들고 다시 牡蠣와 毒董의 가루를 醋劑에 넣고 마신다¹⁶⁹⁾.

⑨ 동물 油脂劑

동물 油脂劑는 『五十二病方』에 모두 27方이 있고 전부 外用藥이다. 油脂의 종류에서 돼지기름이 가장 많아 18方이다. 마왕퇴 의서에서는 “僦膏”(“令傷無礙, 取僦膏”¹⁷⁰⁾), “職膏”(“齋杏核, 中入以職膏”¹⁷¹⁾), “豕+貢膏”(“取蕪荑中核, 治, 豕+貢”¹⁷²⁾), “豬膏”(“以豬膏和”¹⁷³⁾), 僦職膏(“以僦職膏和”¹⁷⁴⁾), “織諸膏”(“取三歲織諸膏”¹⁷⁵⁾), “豕膏”(“豕膏和”¹⁷⁶⁾), “豬織膏”(“以豬織膏和傅之”¹⁷⁷⁾)라 하였다.

이 밖에 또한 羊油(마왕퇴 의서에서는 “羶脂”¹⁷⁸⁾), 牛油(마왕퇴 의서에서는 “牛脂”¹⁷⁹⁾ 혹은 “牛煎脂”¹⁸⁰⁾),

167)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99.
168)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79.
16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51.
170)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38.
171)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45.
172)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62.
173)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63.
174)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85.
17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87.
176)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24.
177)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42.
178)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84.
17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96.

蛇油(마왕퇴에서는 “蛇膏”¹⁸¹) 등 동물의 지방과 약물을 섞어 곁에 바르는 약으로 단지 1~2방만 있다.

⑩ 기타 부형제

상술한 제제 이외에 마왕퇴에는 기타 부형제로 만든 외용약이 있다. 이러한 부형제에는 . 嬰兒溺¹⁸², 膽汁(以大膽和¹⁸³), 乳汁(以乳汁和¹⁸⁴), 鳥卵¹⁸⁵, 頭脂¹⁸⁶, 穀汁¹⁸⁷, 醬汁(以馬醬和¹⁸⁸), 龜腦¹⁸⁹, 蜂幼子 및 水銀¹⁹⁰, 車故脂¹⁹¹, 久膏¹⁹² 등이 있다.

3) 咬咀

咬咀는 조직이 성글고 연한 약재를 이빨로 자르는 방법으로 즉 나중에 咬咀法이라 하였다. 『五十二病方』에서는 ‘咬咀’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지만 “咀蝥以封之”¹⁹³라 하여 薤白을 이빨로 잘근잘근 씹어 凍瘡에 붙이는 것을 ‘咀’라 하였고, “[取董葉]口咀而封之”¹⁹⁴라 하여 董葉을 입으로 깨물어 환부에

붙이는 것을 ‘口咀’라 하였고, “嚼藥米”¹⁹⁵라 하여 嚼이라 하였다. 이 밖에 『五十二病方』卷末 佚文에 또한 “咀”¹⁹⁶와 “雜咀”¹⁹⁷라는 말이 나온다. 또한 『雜療方』에서 “取空壘[藥名]二斗父且”¹⁹⁸라 하여 ‘父且’(즉 咬咀)라는 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馬王堆 漢墓에서 출토된 의서는 옛 炮制法에서 오랫동안 의문시되었던 ‘咬咀’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咬咀’는 전해지는 의서에서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진정한 함의는 줄곧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馬王堆 漢墓 의서가 출토되기 전에 이 말은 『靈樞壽夭剛柔篇』의 藥熨法에 최초로 나타난다. 그 방법은 4가지 약을 이용하여 “皆咬咀, 漬酒中”¹⁹⁹이라 하였다. 東漢말기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에도 이러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서에는 ‘咬咀’의 의의와 구체적인 방법을 해석한 것이 없다.

張仲景보다 근 300년 늦은 梁·陶弘景의 『本草經集注』에서 처음으로 이 말을 해석하여 “舊方皆云咬咀者, 謂秤畢搗之如大豆, 使吹去細末. …… 今皆細切之, 較略令如咬咀者”²⁰⁰라 하여 최초에는 口嚼하였고 나중에 이르러 약물을 搗碎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다시 칼로 자르는 것으로 바뀌는 3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南北朝 약학가의 안중에는 ‘咬咀’는 약재를 계량한 후에 大豆 크기로 쪼은 과립이었다. 그렇다면 왜 직접 ‘搗碎’라 하지 않고 ‘咬咀’라 하였을까?

唐代 『新修本草』의 주편자인 蘇敬 또한 해석하길 “咬咀라는 것은 헤아려 짐작(商量斟酌)하는 것으로 나의 해석은 이치를 벗어나 사사로움에서 나온 것이다.”²⁰¹라 하여 ‘咬咀’는 즉 ‘헤아려 짐작’한다는

180)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99.
 181)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86.
 182)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69.
 183)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61.
 184)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53.
 18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72.
 186)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81.
 187)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89.
 188)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708.
 18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08.
 190)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56.
 191)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17.
 192)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26.
 193)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30.
 194)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64.

19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49.
 196)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51.
 197)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649.
 198)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751.
 199) 黃帝內經靈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21.
 200) 陶弘景. 本草經集注甲本殘卷《敦煌醫藥文獻輯校》.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8. p.557.
 201) 唐慎微.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35. “云咬咀, 正謂商量斟酌之, 余解皆理外生情爾.”

뜻이고 다른 해석은 할 수 없다. 그러나 ‘咬咀’가 왜 ‘헤아려 짐작’하는 것과 연계되는지는 이해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宋代 약학가들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掌禹錫은 ‘咬咀’는 陶弘景이 말한 ‘細切’이라 하였다²⁰²⁾.

寇宗奭은 細切도 옳지 않다고 하여 “儒家는 含味의 뜻이 있다고 하여 사람이 이빨로 깨물듯이 쪼개지만 먼지가 나지 않고 단지 含味하게 한다.”²⁰³⁾고 하였다. 그는 ‘咬咀’는 儒家가 보기에는 ‘含味’의 뜻이 있다고 하였다. 물건을 입속에 넣고 씹는 것처럼 약재를 잘라 부수어 가루를 내지 않고 약재의 原味를 지니게 한다. 寇氏는 해석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어떻게 해야 약재가 ‘破而不塵’하게 되는지에 대해 寇氏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漢代에서 北宋말에 이르기까지 1000여 년간 누구도 이 말을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하였다.

元代 李杲(東垣)는 임상의로 그의 해석은 매우 진솔하여 “咬咀는 옛 방법이다. 옛날에는 철제 칼이 없어 이빨로 깨물어 麻豆 크기로 잘게 부수어 약간 거칠게 약을 만들어 달여 약액을 맑게 한다. 뱃속에 들어가면 升하고 散하기가 쉽다. 이것이 咬咀이다.”²⁰⁴⁾라 하였다. 李杲는 脾胃는 ‘升散’해야 한다는 이론에 염두를 두어 ‘咬咀’하여 만든 약과 ‘易升易散’을 연계시켰다. 그는 고대에는 철로 만든 칼이 없었기 때문에 고인이 약재를 이빨로 가늘게 깨무는 것이 ‘咬咀’라 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아마 ‘咀’자에 근거한 것으로 ‘咀’는 입으로 깨물어 咀嚼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문제는 입으로 깨문다면 왜 직접 ‘咀’라 하지 않고 ‘咬’자를 가했을까? ‘咬咀’는 간단히 ‘咀’에 의거하여 해석한다면 陶弘景에서 寇宗奭에 이르기

까지 학식이 깊은 수많은 의약가가 왜 모두 추리하지 못하고 李東垣에 이르러서야 수수께끼가 풀렸을까? 이러한 옛 ‘炮制’ 방법은 역시 가장 오래된 자료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馬王堆 漢墓에서 출토된 고의서는 고대에 약을 입으로 깨부수는 방법이 확실히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五十二病方』에 “咀薤以封之”(薤를 씹어서 凍瘡에 바른다), “取薑葉……皆以甘沮(口咀)而封之”(薑葉을 취하여 입으로 씹어서 바른다), “完者相雜咀”(운전환 약을 함께 嚼碎한다)라는 말이 이미 나타난다²⁰⁵⁾.

이로써 馬王堆 古醫書시대(기원전 2세기 이전)에 약물 분쇄법에 ‘口咀’법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입으로 깨물어 사용하는 것은 모두 ‘咀’ 한 글자이고 ‘咬’와 連用하지 않았다. 또한 ‘咀’자가 ‘沮’로 오기되었지만 ‘冂’로 쓴 것은 없다. 따라서 입으로 약물을 저작하는 것이 ‘咀’자만으로 충분하다면 왜 후세에 ‘咬’자를 가했을까? 천년 동안 풀리지 못한 것은 이 ‘咬’자이다.

그런데 馬王堆에서 출토된 『雜療方』에는 ‘父冂’라는 두 글자가 있다. 원문은 “取空壘二斗, 父冂”²⁰⁶⁾라 하였다. ‘空壘’는 옛 약명이고 왜 ‘父冂’라 하였을까? ‘父冂’가 ‘咬咀’ 즉 咀嚼이라 한다면 2斗의 약을 咬碎 하려면 병이 낮은 것이 아니라 모든 치아가 상했을 것이다. 주의할 점은 原書의 ‘冂’자가 ‘咀’자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馬王堆 漢墓에서 출토된 의서에서 ‘咀’를 써야하는 곳에 ‘冂’로 쓰지 않았다. ‘冂’가 ‘咀’라고 주장한다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父冂’가 마왕퇴 한묘 의서에 한 차례만 나타나지만 『武威漢代醫簡』에서 炮制法으로 ‘父’가 한 차례 나타나며 ‘父冂’는 7차례 나타난다²⁰⁷⁾.

또한 이 방법으로 가공하는 약재는 여러 가지로 입으로 깨물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武威漢

202)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5. “臣禹錫等看詳咬咀即上文細切之義非商量斟酌也”

203)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47. “儒家以謂有含味之意, 如人以口齒嚼, 雖破而不塵, 但使含味耳.”

204) 元王好古著, 胡國臣主編. 湯液本草·東垣先生用藥心法《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5. “夫咬咀, 古之制也. 古者無鐵刃, 以口咬細, 令如麻豆, 爲粗藥. 煎之, 使藥水清, 飲於腹中則易升易散也, 此所謂咬咀也.”

205)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564, p.630, p.649.

206)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p.751-752.

207) 甘肅省博物館·武威縣文化館. 武威漢代醫簡. 北京. 文物出版社. 1975. 簡17, 47, 57, 71, 木牘 80甲, 80乙, 87甲, 89甲.

代醫簡』이 출토된 연대는 대략 東漢 초기(1세기)로 馬王堆 漢墓 의서에 비해 근 300년 늦다. 이렇게 많은 ‘父且’에 모두 口字旁을 붙이지 않아 오기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父且’가 ‘口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또한 이는 어떤 방법일까?

‘父且’의 原義를 살펴보면 ‘父’에 관하여 郭沫若은 “父는 斧의 初字이다. 석기시대에 남자는 石父를 가지고 조각하였기 때문에 孳乳는 父母의 父이다.”²⁰⁸⁾라 하였다. 父癸鼎上の ‘父’자는 한손으로 도끼를 쥐고 있는(도끼가 특별히 크다) 형상이 분명하다. 또한 ‘且’의 原義는 고찰에 의하면 ‘且’²⁰⁹⁾이고 且는 禮器이면서 砧板(도마)이다. 『史記項羽本紀』에 “如今人方爲刀俎, 我爲魚肉, 何辭爲?”²¹⁰⁾라 하여 여기서의 ‘俎’는 礎이다. 古詞에 ‘斧鑕’이 있고 ‘斧質’도 있는데 質은 鑕이고 砧이기도 하다. 『漢書項籍傳』에서 “孰與身伏斧質, 妻子爲戮乎?”²¹¹⁾라 하였고, 『韓非子·外儲說左下』에서 “(西門豹)願請璽, 復以治鄴. 不當, 請伏斧鑕之罪”²¹²⁾라 하였다. 따라서 ‘刀’와 ‘俎’, ‘斧’와 ‘質, 鑕’은 전자는 칼이나 도끼이고 후자는 물건을 가는 도마로 베어 죽이는(砍殺) 것을 뜻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왜 마찬가지로 칼이나 도끼와 도마의 ‘父’, ‘且’가 베고 가는 뜻의 말로 조합될 수 없었을까?

이렇게 말하면 ‘父且’의 原義는 ‘斧俎’로 이해될 수 있다. ‘杵臼’, ‘刀俎’, ‘斧鑕’과 같이 이는 물체를 분쇄하고 자르는 공구이다. 斧로 약재를 자르고 쪼아서 잘게 만들고 아래 바닥은 도마로 삼은 것이 ‘父且’(후세에 口자를 가하여 ‘咬咀’가 되었다)의 本義이다. 이러한 이해가 정확하다면 이는 陶弘景이 咬咀한 후의 약이 ‘如大豆’하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으며, 동시에 왜 2斗나 몇 가지 약 내지는 십여 가지의 약물 모두 ‘咬咀’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다. 문제가 된 것은 ‘父且’법의 용어가

너무 오래되어 東漢 초기에는 통행되었으나 500여 년이 지난 陶弘景 시기에는 그 법이 생긴 결과만 알았지 그 말의 원시적인 함의를 몰랐다. 후인이 이 두 글자에 ‘口’字旁을 붙여 더욱 사람들을 의혹스럽게 하였고 그 결과 상상으로 추측하였다. 출토의서의 원시 면모가 없었다면 아마 오늘날까지 ‘咬咀’가 원래 ‘父且’(斧俎)임을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출토된 漢代 의약문헌에서 보면 적어도 東漢 초기의 ‘炮制’ 방법은 주로 약재를 煎煮하여 복용하기에 적합하게 한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각종 형상의 약물을 잘게 가공하여 용기에 넣어 편리하게 하는 것이 주요 방법이 되었다. ‘治’는 분쇄하여 가루로 만드는 것으로 같아서 사용할 수 있고 절구에 쪼어 사용할 수도 있다. ‘搗’는 절구를 사용하는 것이고, ‘斬’은 刀로 절단하는 것이고, 父且(후세에 ‘咬咀’로 오기함)는 도끼로 약재를 잘라 잘게 부수는 것이다. 이상의 방법은 대부분 단일한 약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방제를 겨냥한 것이다. 즉 방제의 약물(단미일 수 있고 여러 미일 수도 있음)에 집중시킨 후 다시 이들을 함께 治, 搗, 父且(咬咀)하여 잘게 만든다. 酒, 醋, 童便, 동물의 油脂 등도 방제가 합성된 후에 가한다.

따라서 『神農本草經』에서 “藥性有宜丸者, 宜散者, 宜水煮者, 宜酒漬者, 宜膏煎者”²¹³⁾라 하여, 이른바 酒漬, 膏煎, 水煮, 丸散 모두 방제를 배합시킨 후에 액체의 輔料(이는 일종의 약물이라 말할 수 있음)를 넣는 것으로 單味약을 ‘炮制’한 것은 매우 적다. 이는 의약발전 초기에 의약분업이 분명치 않았고 약재의 교역 규모도 적었기 때문에 약물의 ‘炮制’ 또한 후세처럼 약물 전문가가 만든 후에 다시 환자에게 파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炮制’는 대부분의 생이나 환자 스스로 하였다. 그 당시 ‘炮制’ 공구는 집집마다 반드시 갖추어진 생활용품으로 후세 藥家가 사용한 특수한 공구는 필요치 않았다.

‘炮制’에 따른 이상의 특징으로 보면 東漢 초기(1세기) 이전은 ‘炮制’의 발전 초기에 속한다. 오랜 세월이 흘러 약물의 ‘炮制’는 음식물의 조리에서

208) 郭沫若. 甲骨文字研究《漢語大字典》三卷本.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95. p.2039.
209)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漢語大字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96. p.15.
210) 司馬遷 撰. 史記. 서울. 景仁文化社. 1983. p.79.
211) 班固 撰. 漢書. 서울. 景仁文化社. 1983. p.453.
212) 周韓非. 韓非子外儲說左下《四庫全書子部》卷12. 發行年未詳. p.10.

213) 唐慎微.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31.

점차 벗어나 방법이 간단한 ‘制其形’(淨選粉碎)이 위주였고 또한 모든 처방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東漢말기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을 지표로 삼아 ‘炮制’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3. 漢代 의약서에서 炮制法

傳世하는 漢代 의약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神農本草經』과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이다. 이 두 책은 의학에서 획기적인 저작일 뿐만 아니라 ‘炮制’ 발전단계의 지표이기도 하다. 『神農本草經』의 연대는 지금까지 정론은 없지만 필자가 출토 의방서의 ‘炮制’에 따른 총체적인 수준으로 볼 때 『神農本草經』의 총론 내용이 형성된 시대가 대체로 동시기로 추단된다. 『神農本草經』 총론에서는 약물의 “陰乾暴乾, 采造時月生熟, 土地所出, 真偽陳新, 並各有法”²¹⁴을 언급하였고 약물의 丸·散·水·酒·膏 등 제형을 언급하였으며 심지어 “凡此七情, 合和視之, 當用相須者, 相使者良, 勿用相惡者, 相反者. 若有毒宜制, 可用相畏, 相殺者”²¹⁵를 언급하였다. 말하자면 『神農本草經』에서 약물의 건조방식, 채집과 가공제작 시간, 약물의 생熟(炮制한 약을 일반적으로 熟藥이라 칭한다.)을 언급하였고 또한 몇몇 약물의 제형도 나타난다. 이러한 제형의 앞선 작업으로 실상 약물에 대해 포제를 하였다.

이 이외에 이른바 ‘七情合和’는 방제에 있어서 약물 배합에 주의 사항을 가리킬 수 있고 ‘七情’으로 약물의 포제 과정을 지도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사실상 후세에는 일반적으로 상용하는 약물의 ‘七情’으로 ‘炮制’에 쓰이는 輔料 혹은 약물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神農本草經』의 총론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보면 東漢 시기 약물의 ‘炮制’는 이론적인 단계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神農本草經』의 구체적인 약물에는 炮制法이 많지 않다. 소량의 炮制法에서 어떤 것은 당시 道家 煉丹術의 일부에 속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丹砂 ……

能化爲汞”²¹⁶, “石膽 …… 能化鐵爲銅”²¹⁷ 등은 모두 煉丹에서 볼 수 있는 화학반응에 속해 엄격하게 말해서 치병하기 위한 약물의 ‘炮制’는 아니다. 이 밖에 동물 약의 炮制法이 있다. 예를 들어 桑螵蛸는 蒸熟(그 속의 蟲卵을 살멸시킴)하고 露蜂房, 蛇蛻, 蜥蜴은 火熬(烤炙)를 요하는 것들이다. 『神農本草經』에서 어떤 약물은 천성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烏頭는 “汁煎之名射罔”²¹⁸이라 하였고, 大豆黃卷은 大豆를 發芽시킨 것으로 후세 ‘炮制’에서 이를 ‘藥法’이라 하였다. 阿膠, 白膠 등은 가축의 가죽을 녹여 만든 膠이다.

『名醫別錄』은 魏晉사이에 명의를 증보하여 만든 것으로 그 내용은 『神農本草經』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약물의 포제방법이 매우 적다. 그러나 그 중에 辛夷는 “去中心及外毛, 毛射人肺, 令人欬”²¹⁹라 하여 약물을 淨選하지 않아서 초래하는 부작용을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초기 본초에는 ‘炮制’에 대한 기제가 매우 적지만 자고이래로 포제를 고찰한 실제 상황은 주로 방제 서적에 의거했기 때문에 이는 기이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張仲景 의서는 漢末 ‘炮制’의 실제적인 수준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은 오늘날 『傷寒論』, 『金匱要略』 두 책으로 되어 있다. 이 두 책에서 ‘炮制’방면의 일대 진전은 약물의 炮制法이 주로 방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방제 속의 각 약물마다 포제의 방법을 注明한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유전되고 있다. 이는 별다른 변화는 아니고 방제를 조성하기 전에 약물을 사전에 일정한 포제 과정을 거쳐 配方的 요구에 부합시켰음을 의미한다. 이는 당시 전문 약사가 먼저 이러한 과정을 완성시키고 포제를 거쳐서 파는 약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혹은 配方 이전에 반드시 각자의 특성에 근거하여 먼저

214) 唐慎微.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31.

215) 唐慎微.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31.

216) 神農本草經. 《中華經典醫書》第4輯.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3. p.19.

217) 神農本草經. 同《中華經典醫書》第4輯.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3. p.21.

218) 神農本草經. 《中華經典醫書》第4輯.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3. p.84.

219)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64.

포제를 하였다. 이는 또한 포제가 주로 복용에 알맞게 하는 것에서 약성을 겨냥한 것으로 진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어떤 방면에서 보더라도 방제에서 약물을 각기 포제하는 것은 포제의 일대 진전임을 의미한다.

張仲景 의서에 있는 炮制法을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去皮: 桂枝 厚朴 附子 巴豆(去皮心) 豬苓 烏頭(熬去皮) 杏仁(去皮尖) 皂莢(刮去皮) 巴豆 豬苓 大黃
- 去毛: 石葦
- 去節: 麻黃
- 去蘆: 黃芪 藜蘆
- 去心: 遠志, 丹皮, 天門冬, 巴豆
- 去足: 蠶蟲 虵蟲(去翅足)
- 去穢: 枳實
- 去核: 大棗, 蜀椒
- 去汗: 蜀椒
- 炙: 厚朴 枳實(㉘ 炙令黃) 百合 鱉甲 阿膠 蜂窠 皂莢(用酥炙) 生野狼牙(炙香) 烏頭(蜜炙)
- 炒: 杏仁 吳茱萸 蜀椒(去汗)
- 炮: 附子 天雄 烏頭 乾薑
- 熬: 牡蠣 鼠婦 葶藶(熬令黃色) 蜣螂 巴豆(熬研如脂, 熬黑) 桃仁 水蛭 虵蟲(去翅足) 瓜蒂(熬黃)
- 燒: 雲母 烏扇 亂髮(燒灰) 礬石 緋帛(燒灰) 枳實 蒴藋 桑根皮 王不留行
- 煉: 礬石
- 煨: 訶黎勒
- 蒸: 大黃 烏梅 生地黃
- 煮: 澤漆 赤小豆 半夏 紅藍花(酒) 苦參(苦酒)
- 搗: 栝蒌實 巴豆 杏仁 桃仁
- 研: 雄黃
- 碎: 滑石 石膏 代赭石 太一禹餘糧
- 切: 生薑 知母 芍藥
- 斬折: 麻黃, 細辛, 瞿麥
- 銼: 瓜蒂
- 擘: 大棗 百合 附子 枳實 大黃 梔子
- 碾: 艾葉
- 破: 附子
- 咬咀: 生地黃
- 搗取汁: 生薑
- 洗: 大黃(酒洗) 半夏(湯洗) 蜀漆(暖水洗去腥) 吳茱萸(湯洗) 海藻(洗去鹹)
- 浸: 大黃(酒浸) 烏梅(苦酒漬) 杏仁(湯浸) 水浸(枳實)
- 泡: 桃仁, 杏仁

이상과 같이 초기 포제의 발전 단계인 淨制, 粉碎하는 방법이 있는 것 이외에 특별히 드러나는 포제법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淨制法에서 非藥用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보다 확대되고 또한 이러한 방법에서 효과를 증대시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단순히 약물을 청결하게 하거나 순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種仁類의 약물(杏仁, 桃仁, 巴豆)에 皮尖을 제거하여 약력이 쉽게 煎出하게 하였다. 또한 麻黃은 去節하였는데, 오늘날 麻黃節에서 발한시키는 등의 성분과 함량이 莖에 비해 확실히 적다는 것이 실증되었기 때문에 去節은 약물의 약력을 발휘시키는데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 杏仁에 '兩仁'을 제거한 것은 초기 용약에서 '異形에 따른 두려운' 심리를 면치 못한 것이다. 杏仁의 '兩仁'은 일종의 雙胚乳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계란에 두 개의 노른자가 있는 것처럼 기이한 것이 아니다. 杏仁을 잘못 사용하면 확실히 독이 있지만 雙仁과는 무관하다. 의학 발전의 초기에 사람들은 이상한 형태의 물품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을 가져 행인에 '兩仁'을 제거하라고 규정하는 기제가 있게 되었다.

약물의 粉碎法에서 당시 공구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搗, 研, 切, 咬咀 등 옛 법을 채용하였고 단지 切, 剉法을 사용한 약물의 수량이 馬王堆 漢代의서에 비해 보다 많다. 이는 刀具의 사용이 점차 개선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火制를 이용하는 방면에 있어서 張仲景 시대에는 이미 큰 진보가 있어 火制해야 하는 약물이 근 40종이고 또한 "燒灰存性"²²⁰⁾, "炒去汗"²²¹⁾ 등의 법이 출현하였다. 그중에 燒存性 방법은 약효를 부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水制약물도 주로 약물을 청결하게 하는 것에서 약성을 전향 개선시키고 독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보다 많이 발전되었다.

220) 張仲景 述, 王叔和 集. 新編金匱方論《中華經典醫書》第2集.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3. p.584.

221) 張仲景 述, 王叔和 集. 新編金匱方論《中華經典醫書》第2集.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3. p.546.

예를 들어 麻黃을 “湯泡去黃汁”²²²⁾하고, 半夏, 吳茱萸를 “湯洗”²²³⁾한 것은 모두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함이었다. 일부 약명 아래에 水洗의 작용을 설명하였는데, 蜀漆은 “洗去腥”²²⁴⁾하고, 水蛭은 “暖水洗去腥”하고, 海藻는 “洗去鹹”²²⁵⁾하는 등이다. 輔料를 운용한 ‘炮制’ 단미약이 날로 많아졌다. 예를 들어 大黃은 “清酒浸”²²⁶⁾하고, 烏梅는 “以苦酒浸烏梅一宿”²²⁷⁾하였다.

총괄하자면 張仲景 의서에서 炮制法은 주로 단미약의 포제에 진진이 있었고, 또한 ‘炮制’의 목적성이 보다 명확하여 약성의 작용을 잘 발휘하고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張仲景 의서의 허다한 炮制法은 줄곧 사용되어 내려와 ‘炮制’에 대해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張仲景 의서에서 炮制法은 산만하고 계통적인 이론의 총결도 없었으니, 이러한 상황은 이 이후 南北朝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바뀌게 되었다.

Ⅲ. 결 론

본론을 통하여 漢代 以前 醫籍을 통한 포제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인류가 치료의 목적으로 천연물을 섭취하게 된 것은 식용으로 사용된 것보다 역사적으로 후대의 일이었다. 商初의 大臣인 伊尹이 烹調術에 능했기 때문에 그를 湯液을 만든 사람으로 언급한 기록도 있지만, 이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의학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물과 불로 음식을 조리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마왕퇴 출토 의서에서 ‘湯液’의 명칭으로 포괄할 수 있는 공통의 조제법이 등장하지 않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약물 가공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탕액의 개념은 점차 형성되고 있었다 할 수 있다.

馬王堆 漢墓에서 출토된 『五十二病方』, 『養生方』, 『雜療方』 등에 약물의 淨選, 粉碎, 炮炙 등 포제의 주요 방면이 간단하지만 상당히 많이 기재되어 있다.

포제하기 이전의 처리방법으로, 세척에 ‘酒’, ‘濯’ 등, 선별에 ‘擇’, ‘去’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가공한 약물을 여과할 때에 ‘攄’, ‘索’, ‘浚’ 등의 단어를 사용했고, 건조할 때에 ‘陰乾’, ‘暴’(曝), ‘陽’ 등의 단어를 사용했다. 약물을 분쇄하는 ‘切削’은 약제 성질의 특징에 근거하여 명칭이 다르게 사용되었다. 가장 많은 분쇄법은 ‘治’라 하여, 이는 건조시켜 갈아서 분말로 만든 것을 말한다. 즈액이 비교적 많은 동물약이나 신선한 식물의 연말과 분쇄를 ‘齧’ 혹은 ‘齏’라 하였다. 액체보료는 주로 약물을 浸泡하는 용매를 말한다. 그 중에 물 이외에 상용된 것은 각종 주류, 醋, 油脂, 膽汁 등이다. 열처리하는 방법에는 微火로 가온하는 것 ‘溫’이라 하였고, 이 외에 ‘燔’, ‘燒’, ‘炙’ 등이 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혼합하는 것을 대체로 ‘置’, ‘入’, ‘投’라 하였다. 약물을 收藏할 때는 주로 ‘韋’, ‘緇’, ‘布’로 싸서 보관하였고, 어떤 질병에 사용하는 약물에 대해 다년간 저장할 것을 규정하였다.

馬王堆 의서에 나타난 약물의 제형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으니, 천연약물 제제, 食療劑, 藥末劑, 炭末劑, 丸劑, 水劑, 酒劑, 醋劑, 동물 油脂劑, 기타 부형제 등이 있다. 천연약물 제제는 자연계에 혼한 어떤 물질을 炮炙나 가공하지 않고 직접 약에 넣는 것으로 『五十二病方』에 25방이 있다. 하나의 예를 제외하면 모두 외용방이라는 특징이 있고, 이런 천연약물의 方이 1/10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비교적 원시적인 약물제제라 말할 수 있다. 食療劑는 약물을 식품에 넣어 내복하는 방식으로 18방이 있다. 藥末劑는 『五十二病方』에는 31방이 있어 이는 당시 비교적 상용된 제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왕퇴 의서에는 후대의 湯劑를 포함하고 있지만 ‘湯’ 혹은

222) 張仲景 撰 王叔和 編.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67.
223) 張仲景 撰 王叔和 編.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70, p.144.
224) 張仲景 撰 王叔和 編.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97.
225) 張仲景 撰 王叔和 編.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188.
226) 張仲景 撰 王叔和 編.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63.
227) 張仲景 撰 王叔和 編.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172.

‘湯液’이라는 명칭은 없다. 水劑는 29方이고, 그 중 물로 약물을 달인 것이 모두 20方이다.

또한 ‘咬咀’는 마왕퇴 의서의 『雜療方』에서 ‘父且’라고 한 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변형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父且’의 原義는 ‘斧俎’이며, 도끼로 약재를 잘라 잘게 부수는 것을 말한다.

漢代 의약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神農本草經』과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으로, 이 두 책은 ‘炮制’ 발전단계의 지표이기도 하다. 『神農本草經』은 약물의 건조방식, 채집과 가공제작 시간, 약물의 生用과 熟用을 언급하였으며, 몇몇 약물의 제형도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은 제형의 앞선 작업으로 실상 약물에 대해 포제를 하였다. 이 이외에 ‘七情合和’를 언급하여 방제에 있어서 약물 배합에 주의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神農本草經』의 총론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보면 東漢시기 약물의 ‘炮制’는 이론적인 단계에 진입하였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약물의 포제법은 많이 수록되지 않았고, 이는 『名醫別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에서 ‘炮制’방법의 일대 진전은 각 약물마다 포제의 방법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유전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炮制’의 목적성이 보다 명확하여 약성의 작용을 잘 발휘하고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함으로 진전되었음을 보여준다.

V. 참고문헌

1. 元·王好古 著, 胡國臣 主編. 湯液本草·東垣先生用藥心法《王好古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5.
2. 神農本草經. 《中華經典醫書》第4輯.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3. p.19, 21, 84.
3. 張仲景 述, 王叔和 集. 新編金匱方論《中華經典醫書》第2集.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3. p.546, 584.
4. 陶弘景. 本草經集注甲本殘卷《敦煌醫藥文獻輯校》.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8. p.557.
5.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 漢語大字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96. p.15.
6. 郭沫若. 甲骨文字研究《漢語大字典》三卷本.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95. p.2039.
7. 張仲景. 金匱要略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21, 23, 71.
8.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35, 47, 328, 331, 335, 338, 341, 345, 348, 349, 351, 355, 359, 371, 380, 384, 389, 393, 394, 396, 398, 399, 404, 405, 406, 411, 416, 422, 426, 429, 437, 451, 456, 458, 460, 464, 465, 467, 472, 487, 499, 500, 508, 520, 521, 535, 538, 540, 542, 547, 549, 552, 553, 556, 561, 562, 563, 564, 565, 569, 574, 579, 581, 582, 584, 585, 586, 587, 589, 591, 596, 599, 613, 615, 616, 617, 619, 624, 626, 629, 630, 633, 641, 642, 649, 651, 655, 659, 662, 666, 667, 668, 672, 673, 676, 678, 680, 682, 687, 688, 689, 692, 693, 695, 700, 707, 708, 709, 713, 715, 722, 723, 731, 734, 735, 751, 755, 759, 760, 766, 776, 803, 813. pp, 121-146, 404-410 547-555, 751-752, 775-777, 733-734.
9. 蜀·樵周. 古史考. 北京. 中華書局. 1991. p.9.
10. 鄭玄 撰. 周禮《四部叢刊正編》. 서울. 法仁文化社. 1988. pp.23-24.
11. 明·熊宗立. 醫學源流 卷上《名方類證醫書大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p.39.
12. 陶弘景. 名醫別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64.
13. 山田慶兒. 湯液の起源·科學史資料の研究.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85. p.84.
14. 許信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 上海. 上海古籍出版社出版, 1984. p.599.
15. 唐慎微.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31, 35.
16. 司馬遷 撰. 史記. 서울. 景仁文化社. 1983. p.79.
17. 班固 撰. 漢書. 서울. 景仁文化社. 1983. p.453.
18. 晉·皇甫謐. 甲乙經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2.

19. 漢·鄭康成注. 周禮注疏天官家宰下《十三經注疏》卷2. 北京. 中華書局. 1980. p.21.
20. 朱橚. 普濟方《中國醫學大系》23卷. 서울. 麗江出版社. 1978. p.755*301.
21. 甘肅省博物館·武威縣文化館. 武威漢代醫簡. 北京. 文物出版社. 1975. 簡17, 47, 57, 71, 木牘 80甲, 80乙, 87甲, 89甲.
22. 張仲景 撰 王叔和 編. 註解傷寒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63, 67, 70, 97, 144, 172, 188.
23. 黃帝內經靈樞經.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21.
24. 漢·劉安. 淮南子主術訓 卷9. 發行年未詳. p.139.
25. 宋·李昉. 禮含文嘉《太平御覽》卷869. 發行年未詳. p.3854.
26. 漢·班固. 漢書·食貨志 卷24. 發行年未詳. p.1183.
27. 周·韓非. 韓非子·外儲說左下《四庫全書·子部》卷12. 發行年未詳. p.10.